

무고를 피하기 위한 형사고소 주의사항



김대혁 변호사의
슬기로운 법 생활

형사고소는 우리나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기본적인 법적수단이다. 형사 절차의 무게감에 비해 다소 형사고소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잘못된 고소로 무고죄로 처벌되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이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형사고소를 대리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주의하는 것이 해당 고소가 무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무고의 기본적인 구성요건은 매우 간단하다. 누구든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한다. 검사, 사법경찰관은 물론 해당 수사기관을 통할하는 대통령에 대한 신고 또한 무고죄를 인정할 판결례가 있다.

보통은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 또는 고발장을 제출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징계절차나 형사처분에 대한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권한에 대한 기관에 신고를 하는 시점부터 신고자의 행위가

무고의 영역에 들어간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다음으로 허위의 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말하는데, 고의로서 본인이 신고한 허위의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허위의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신고를 했는데, 사실은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반대로 진실한 사실이라 인식하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어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진실한 사실이라고 단순히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근거가 뒷받침돼야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 관계에 의해 신고사실이 허위 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허위 사실의 개념에 대해서 법원은 단순한 정황의 과장, 허위 부분이 범죄성립에 영향을 없는 경우 등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 세부 사항을 착각이나 착오로 인해 잘못 신고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부분이 진실한 사실에 합치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또한 주관적 의견

이나 법적 평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는 명예훼손범죄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무고죄가 다루는 영역은 '사실'에 대한 것이지 '의견'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장에서 '사실'의 기재와 '의견'의 기재는 매우 중요한 차이를 가지게 되고, '사실'의 기재는 '의견'의 기재보다 더 신중한 작성을 요한다.

그런데 이러한 무고죄의 성립은 실무에서 다소 엄격하게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무고죄는 국민들의 형사사법절차의 발동을 위촉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피신고자가 무혐의를 받거나, 무죄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신고자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신고자가 형사절차에서 입게 되는 심각한 불이익을 감안할 때 필요한 경우라면 무고죄가 분명히 인정돼야 할 사안 또한 존재한다고 보인다.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무고죄의 무거움을 유념하고, 최선의 노력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진실한 사실만을 신고한다면 무고죄가 문제될 일은 없을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

자주 오세요, 젠슨 황



기지수첩
최빛나 (IT부)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방한은 이제 단순한 기업인 방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가 한국을 찾았다는 소식만으로 관련 기업주가 움직이고 시장이 주목한다.

하지만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젠슨 황이 아니라 그가 한국을 찾는 이유다.

과거 한국은 글로벌 정보기술 산업에서 반도체와 제조 역량으로 인정받았다. 엔비디아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생산하는 메모리를 공급받는 고객에 가까웠다.

인공지능(AI)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역할도 달라지고 있다. 반도체뿐 아니라 플랫폼과 콘텐츠, AI 서비스 분야까지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젠슨 황이 한국에서 만나거나 협력

을 논의하는 기업들의 면면을 봐도 변화가 읽힌다.

네이버는 자체 AI 모델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글로벌 AI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 게임 업계도 마찬가지다. 엔씨는 NCAI를 중심으로 피지컬 AI와 디지털 트윈 사업을 키우고 있으며, 크래프톤 역시 AI 캐릭터와 콘텐츠 제작 기술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이들 기업의 공통점은 AI 기술을 소비하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만들고 산업에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국내 IT 기업들은 해외 빅테크의 생태계 안에서 경쟁해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네이버가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엔씨소프트와 크래프톤은 게임 기술을 AI 산업으로 확장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AI 시대의 소비자를 넘어 생태계의 파트너로 이동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젠슨 황의 방한은 한국 산업의 현재 위치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vitra@metroseoul.co.kr

한국은 더 이상 AI 반도체를 공급하는 나라에 머물지 않는다.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만들며 콘텐츠를 생산하는 생태계의 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

물론 방한 자체가 투자나 계약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세계 AI 산업을 이끄는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직접 한국을 찾아 협력을 논의한다는 사실은 분명한 의미를 갖는다.

반가운 것은 젠슨 황 개인이 아니다. 그가 한국을 찾아야 할 이유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와 네이버의 AI, 엔씨와 크래프톤의 새로운 도전이 그 이유다. 중요한 것은 젠슨 황의 방문 횟수가 아니다. 한국 기업들이 앞으로도 세계 AI 산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 남는 일이다.

그래야 다음 AI 혁신의 순간에도 한국이 빠지지 않는 이름으로 남을 수 있다. 그래서 말한다. "자주 오세요, 젠슨 황."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8일 (음 4월 23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상하가 단결하여 만사형통입니다. 60년생 뜻밖의 일로 쉽게 이루어집니다. 72년생 부귀공명을 누리게 됩니다. 84년생 불어 봐야 승산 없고 이겨 봐야 덕이 없습니다.



49년생 지금은 기다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61년생 일은 어렵고 마음은 답답합니다. 73년생 생각지도 않은 사람에게서 작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85년생 상당히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50년생 운이 좋지 않으니 자제가 필요합니다. 62년생 이미 이룬 것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74년생 좋은 운은 아니지만 큰 문제도 없습니다. 86년생 어려움은 있지만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51년생 기회가 왔으니 더욱 정진하세요. 63년생 옛친구나 동료의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75년생 내가 속한 곳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87년생 허황된 욕심보다는 현실에 충실해야 할 때입니다.



52년생 여행이나 외출은 미루는게 좋습니다. 64년생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76년생 어려움이 있지만 곧 해결됩니다. 88년생 주의의 말보다는 본인의 판단을 믿는 게 필요합니다.



53년생 어려운 사람에게 덕을 베풀면 길합니다. 65년생 새로운 일을 추진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77년생 욕심을 부리면 손해를 봅니다. 89년생 여행을 떠나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54년생 명예와 인기가 모두 좋습니다. 66년생 하는 일마다 잘 이루어집니다. 78년생 부부나 이성운이 좋고 사업방면에도 희소식이 있겠습니다. 90년생 일에 대한 마무리와 말조심에 필요합니다.



55년생 지금은 힘들지만 곧 나아질것입니다. 67년생 신중함보다는 추진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79년생 주위에 덕을 베풀면 더 큰 이득을 얻습니다. 91년생 운이 길하고 마음도 편한 하루입니다



56년생 모든 것이 순탄한 하루입니다. 68년생 집안에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80년생 이성문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92년생 지금은 윗 분의 말씀을 듣는 게 좋습니다.



57년생 외출하면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69년생 다른 사람보다는 본인 일에 만 집중하세요. 81년생 성급한 추진보다는 기다림이 더 필요합니다. 93년생 지금은 인내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58년생 명예가 오르는 길한 하루입니다. 70년생 부부와 가족간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82년생 사업운이 길하고 사세가 확장되었습니다. 94년생 친구나 동료간에 사소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59년생 휴식과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71년생 돈 쓸 일이 많아지고 약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83년생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 더 큰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95년생 모든 것이 평탄한 하루입니다.



김상회의四季 스승의 그림자

필자의 어렸을 적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라는 말로서 인생의 여정에서 교육의 중요성과 지식과 지혜 그리고 경험을 직접적으로 전달해주는 스승의 역할과 의미가 지대하여 어찌면 부모님보다도 더 높게 여겼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음으로써 인생의 길을 안내해주는 스승의 역할을 우러르며 높게 평가하는 것이다. 언제부턴가 세상은 급격하게 변했다. 그것도 아주 우려스러운 정도로. 제자가 스승을 폭행함은 물론이요, 부모들까지 교실에 들어와 교사에게 폭언과 폭행까지 일삼는다. 언론에 대서특필되곤 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졌다. 물론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많이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어려웠던 과거에는 집안의 부모님들보다 스승들은 교육이 높았고 따라서 일반적인 사회에서 교사는 학식이 높았고, 학식이 높을수록 인격까지 높다고 생각한 과거의 인식은 스승들에 대한 공경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던 것이 현대에 와서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지자 교사는 그냥 직업인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되어 버린 것이다. 필자에게는 가슴 멍클하게 고마운 스승이 계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다. 필자의 직업이 직업인 만큼 오늘의 필자가 있도록 깨우쳐준 분이다. 스승님은 당신의 이생에서의 복과 명을 아시고는 사주에 없는 재물을 바라지 않겠노라고 습관처럼 말씀했고, 그렇기에 공연한 말로 상담인에게 기대를 갖게 하지 않게 할 말만 하셨다.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로 공연히 기대를 갖게 하지 않았으니 필자가 아직도 가슴에 새기고 있는 스승님 말씀이다. 운이 박하거나 업장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심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면 열대 맞을 때를 받으려도 줄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대하지 못했던 복까지 기대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우주의 이치라 하셨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6시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레코드를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4	9	1	8	7	6	9	8
7	2	8	8	6	9	9	2
8	6	9	2	1	7	9	8
8	9	7	1	9	8	2	6
2	6	7	9	8	8	1	9
1	8	9	6	8	2	9	7
9	8	8	2	1	6	7	9
6	1	2	9	7	9	8	2
7	7	2	9	8	2	1	6
8	7	2	9	8	2	1	6

6	8	2	8	7	1	9	2	9
8	9	2	1	6	9	7	8	2
9	1	8	2	9	6	8	7	2
7	2	9	6	2	8	8	9	1
1	7	9	8	8	2	1	9	6
2	6	8	9	9	7	8	1	2
2	8	1	9	9	6	2	7	8
9	9	6	7	8	2	1	2	8
8	2	7	2	1	8	9	6	9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26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30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